

◆머느리권씨 열전 15-2

‘억울한 人生은 있어도 억울한 역사는 없다’

남이南怡장군의 부인 권씨 (추밀공파 19세, 좌의정 권람權擘의 딸)

남이의 유적지

◇묘소 경기도 화성면 비봉면 남전리 산 145번지에 존재한다. 그러나 남이가 가장 최악의 형벌인 거열형(四肢切斷)이니 그 시신은 묻지도 못하지만 비밀리에 수습하여 은닉하여 묻고, 여기저기 가묘등을 만들어서 위장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민중의 마음 속에 기억되었기 때문일 것이다. 화성군에 있는 묘소도 온전한 시신이 있는지도 알수가 없다. 물론 조배인 권씨의 묘도 전혀 질리가 없다.



남이성 16만평, 둘레6km,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 방하리에 있는 성이다. 남이 장군의 묘역이 있는 문화유적지이자 관광휴양지로 개발된 곳으로서 세계 122개국으로부터 130만명의 외국인관광객을 포함, 연간 총 330만명이 찾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한류 관광지. 사진 강원도

◇남이성 이는 아마 남이의 시신 일부가 있거나 아니면 가묘의 하나일 것이다. 남이성 돌무더기가 남이장군 무덤이라는 민간 전승에 유래한 것인데, 원래 성이 아니고 조그만 성으로 육지와 연결 되어

있었으나 청평담 건설로 완전한 섬이 된 것이다. 한 때 수도권의 명소의 하나였지만 이의 소유주가 결국 친일매국노 조상으로부터 사실상 받은 땅이라는 논란이 겨우 아니라고 종식했지만 마뜩지 않고 남이장군 기념비도 이은상이 썼으니 이 또한 묘한 인연이 아닐 수 없다.



남이사당의 남이사당제, 원래 사당의 위치는 원호 2가 거제산이란 동산에 있었으나 1904년 철도부설등으로 주변이 시끄러워 임 지역유지들이 현재의 위치로 옮겼다고 하며, 영정은 1935년에 그린 것으로 전해진다. 사진 문화재청

◇남이장군 사당 용산역 인근, 용문동 106번지에 있는 데, '남이'가 삼각지 부근에서 300명의 정병을 훈련 시키면서 군생활을 시작한 곳이기도 하고 처형된 새남터가 있었기 때문에 300여년전에 건립했다. 지금 위치는 1904년 철도개설로 약간 변동된 것이고, 이후 1980년대 대대적인 고층 작업등을 거쳐 매년 10월1일 사당제가 열린다. 남이장군 사당제는 서울시 무형문화재20호로 지정되어 용산구의 축제 로 발전되었다. 하루전 용산구 산천동 부군당에서

꽃을 받아오는 행사로부터 시작된다.



절벽과 강을 사이에 두고 바위를 깎아 세운 듯하나 언뜻보기에는 거대한 촛대를 세워 놓은 것 같은 바위가 선바위이고, 석벽과 절벽을 끼고 흐르는 두 물줄기가 합류하여 큰 강을 이루는 강을 남이포라 부른다. 남이장군이 역모자를 평정했다는 전설이 서린 곳이다. 사진 한국관광예행신문

◇선바위와 남이포 경상북도 영양군 입암면 신구리에 있다. 남이장군이 여기까지 왔는지는 알수 없지만 전설로 남아 있다. 운룡지(雲龍地)의 지룡(地龍)의 아들인 아룡(阿龍)과 자룡(子龍) 형제가 있었는데 역모를 꾀하여 무리를 모아 반란을 일으키자 조정에서 남이장군(南怡將軍)에게 토벌할 것을 명하니 남이장군이 이곳까지 내려와 아룡과 자룡을 물리치고 도적의 무리가 다시 일어날 것 같아 큰 칼로 산맥을 잘라 물길을 돌렸다 하는데 그 마지막 흔적이 '선바위'라고 한다. (다음호에 계속) 글 권오철 기자

한국의 세계 양궁 제패의 저력, 전통 활쏘기 국궁

권성욱 생활스포츠지도사·청소년국궁지도사

활쏘기의 기초

활을 처음 배우는 학생에게 활을 들어서 당기고 발사 할 때까지 시간차 순서를 동작이 전개되는 순서대로 크게 세 덩어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예비동작, 본 동작, 마무리 동작으로 나누고, 이것을 다시 세분하면 예비동작으로는

①발디딤-발디딤은 활쏘기의 안정된 자세를 유지하는 기본이 되며, 丁자도 八자도 아닌(비정비팔) 자세를 유지하고, 좌측 발은 과녁의 좌측 하단 우측 발은 우측 하단을 향하여 마주 서되 오른발은 23.5°(지축각)로 하고 양발의 뒤축 거리는 주먹 1개 반 정도로 유지한다.

②손가짐-쭈손은 흘러쥐고, 각지손은 엄지로 시위를 잡고 검지와 중지(쌍가락)로 엄지의 손톱을 덮는다.

③살 메우기-활을 왼쪽 허벅지에 대고 쭈손의 검지로 화살의 아래 1/3쯤을 살짝 잡고, 각지손은 오른손을 잡고 마루깃이 활의 바깥을 향하게 하여 오니 호흡 절피에 바로 든 다음 엄지로 살짝 눌러 끼운다.

본동작으로는 ④걸치기-활쏘기 동작의 시작으로 각지를 시위에 걸고 활의 아랫 고자를 불거름에 걸치고, 온몸의 힘을 빼고 쭈손은 잘 흘러 쥐었는가, 과녁의 평소 조준점은 어디인가, 호흡은 안정되었는가, 마음은 비웠는지를 점검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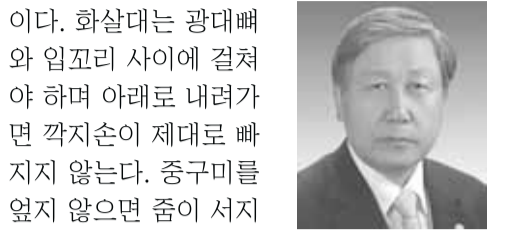
⑤들어 올리기-오른손 죽머리와 중구미를 쳐 들고 왼손은 힘을 빼고 오른손의 힘으로 들어 올린다. 왼손은 팔러 올라가며 '아낙네가 물동이를 이듯이'하며 이마 높이 위까지 들어 올린 상태에서는 앞손과 뒷손이 동그랗게 원을 그리고 있어야 하며, 살촉은 밑으로 처지게 하여 과녁 바로 위에 살짝 올려놓는다. 들어 올리면서 숨은 내쉬기 시작한다.

⑥엄지발가락 누르기-남들 눈에 띄이지 않을 만큼 엄지발가락으로 땅을 지그시 눌러 몸의 무게 중심이 앞으로 살짝 움직일 정도로 하고, 정수리의 백회혈과 아랫배의 단전과 발바닥의 용천혈이 일직선상에 놓이게 선 상태로 가장 안정된 자세를 이룬다.

⑦각지손 끌기-각지손을 천천히 깃바퀴를 받듯이 스치도록 당기면서, 동시에 숨을 들이마시면서 쭈손도 과녁으로 민다. 숨을 들이마시는 빠르기로 각지손을 당긴다. 각지손을 당기면서 동시에 하단전을 팽팽히 긴장시키며 허벅지를 조인다. 각지손 끌기, 숨들이 쉬기, 허벅지 당기기가 동시에 이루어지기까지 빈활과 주살 당기기를 충분히 하게 한다.

⑧조준-조준의 시작은 활을 밀고 당기면서, 각지손에서 화살대를 따라 눈을 엄지손가락 위의 화살촉과 과녁과의 상대적 관계를 통한 조준선 정렬을 해야 하며, 과녁의 정곡을 향해 과녁을 바라보는 얼굴은 잔신 후까지 움직이지 말아야 하고, 시위를 당기면서 턱이 올라가거나 입을 벌리지 않아야 한다. 턱은 쇄골의 패인 곳을 향한 정도로 하고 정곡을 살짝 조준할 때 눈으로 물건을 본다고 하는 느낌이 아닌, 얼굴이 향한 방향에 눈을 둔다고 하는 느낌이며, 심안(心眼)으로 과녁을 보는 것이다. 조준은 두 눈을 사용하지 않, 오른쪽 눈을 주안(主眼)으로 하여, 왼쪽 눈은 종안(從眼)으로 왼쪽 눈을 약하게 사용하는 훈련이 필요하다. 조준의 수련은 상하 조준을 한 다음 좌우 조준을 수정해야 하며, 조준 또는 방사 시 눈을 깜박이지 않아야 하고, 화살이 쏘인 내용을 통하여 조준점을 보정하여야 한다.

⑨만작-각지손을 다 끌고 쭈손을 다 민 상태를 만작이라 하며, 만작에 도달하기 위하여 좌우 균등하게 밀고 당겨 만작에 이르게 해야 한다. 만작은 정신력·체력·궁력의 삼력이 긴장 속에서 조화를 이루는 절리로 궁술의 극치



이다. 화살대는 광대뼈와 입꼬리 사이에 걸쳐야 하며 아래로 내려가면 각지손이 제대로 빠지지 않는다. 중구미를 엮지 않으면 쭈미 서지 않고, 쭈미 서지 않으면 살은 뒤 나가거나 한곳으로 가지 않는다. 각지손을 당기는 것은 손목이 아니라 중구미와 죽머리로 하며, 더이상 밀고 당길 수 없는 상태에서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계속 힘을 가하면서 밀고(정동정靜動靜) 당겨야 한다. 쭈손은 과녁을 향하여 민 상태로 오른팔과 가슴 왼팔로 이어지는 가로선과, 머리 가슴 다리로 이어지는 세로선이 '우'자로 만나는 가슴 한가운데서 힘이 깎지손과 꼭 같이 50:50으로 나누어 지도록 몇 턱턴 힘까지 모두 짜내어 가슴을 '빠'게면서 순식간에 발사가 이루어진다. 만작 상태는 2-3초가량 머무는 것이 좋으며, 이때 허벅지에도 힘이 들어가고 분문도 꼭 조이고 숨은 최대한 깊이 들이마신 상태가 되어야 단전호흡이 된다. 만작에서 마음(心)과 몸(身)과 활(弓)이 혼연일체가 되어야 만작의 극치가 된다.

⑩발사(發射)·이시(離矢)·방사(放射)-만작 상태에서 힘을 계속해서 밀고 당기며 가슴을 넓게 벌리며 가슴을 빠르게 무뎠무뎠의 경지에서 화살이 저절로 쏘여 나가는 시점이 감지된다.

그렇게 감지된 순간에 발사할 뜻을 더하면 가장 좋은 발사가 되는데 자신이 어떻게 쏘는지 그것조차 잊고 뒷손이 화살을 떠나보낸 반동으로 저절로 호랑이가 꼬리를 늘어뜨린 것처럼 퍼지면 좋은 자세가 된다. 발사할 때 뒷족이 낮게 끌리면 손이 바깥쪽으로 휘 뿌리게 되어 살대가 뺨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살은 뒤 나게 된다(뱃까지).

발사(이시)할 때 주의점은 화살을 과부족 없이 벌리고 조여주며, 조준은 화살촉을 목표물 중앙에 두고, 화살과 시위가 얼굴에 저울을 재듯 일정한 각각으로 당도록 하고, 쭈손과 각지손의 높이가 수평을 유지하면서 힘의 균형을 유지한 상태로 2-3초간 집중에 이루어지는 순간에 발사해야 하는데, 의도적으로 각지손을 움직여서 시위를 놓으면 적중이 어렵다. 뒷손이 하는 일을 앞손이 모르게 해야 한다.

⑪마무리 동작(殘身)-발사 후에 거두는 동작으로 '전통사법'으로 쏘면 쭈손은 과녁쪽으로 나가다가 불뎡뎡 앞으로 지고, 뒷손은 큰 원을 그리면서 떨어진다. 만작 상태에서 발사와 동시에 양손이 땅을 향해 반원을 그리며 '학이 날개를 접는 듯'한 동작이 된다. 만작이 되기 전까지는 머리 위로 올려서 손을 밀고 당기는 모양이 머리 위에서 반원을 그리고, 만작 이후에는 퍼진 몸짓을 거두는 동작이 밑으로 반원을 그려 이 두 원을 합치면 완벽한 원이 된다.

이상에서 전통 활쏘기의 개략적인 요점을 정리해 보았다. 이것은 교육의 편익상 구분하였을 뿐이고, 사실은 한 동작으로 물이 흐르듯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전통활쏘기 사법은 '조선의 궁술'이 근본이며, 집궁원칙에 함축해서 잘 표현되어 있다. 오늘날 백인 백색의 활쏘기는 집궁원칙을 무시하고 적중만을 중시한 제도과 개인주의가 만든 산물이다. 활쏘기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된 것은 역사와 전통문화가 함축되었음을 의미하며, 미래 주역인 청소년에게는 백인 백색의 표준화되지 않은 사법을 국가무형문화재로 전수해서는 국궁의 미래는 빛을 발하지 못할 것이다. 청소년 국궁지도자는 '국궁의 미래 주역'에게 '국가무형문화재'를 전수하는 사명감을 가지고 전통활쏘기를 지도해야 한다. (끝)

참고문헌: 정진영 전통활쏘기 출판사 고두미

안동시 안동권씨 2명 당선자 당선증 교부식

3월 8일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안동시 안동권씨 후보 2명이 당선되고 1명은 아깝게 낙선의 고배(苦杯)를 마셨다.

안동시 선거관리위원회는 3월 8일 오후 6시부터 안동시체육관에서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안동시내 7곳의 조합장 선거 개표를 실시했다. 이 결과 안동권씨로 출마한 안동농협조합장에 권태형씨(56. 호장공파)가, 남안동농협조합장에 권기봉씨(63. 정조공파)가 각각 당선되고 안동농협조합장에 출마한 권민씨(부호장공파)는 아깝게도 낙선하였다. 권태형 당선자는 경운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을 졸업, 안동농협 상무를 역임했으며 현재 농곡회 상임부회장을 맡고 있다. 권기봉 당선자는 경북대학교 대학원을 졸업, 남안동농협조합장을 역임, 이번 선거를 합쳐서 모두 세 번째 조합장을 역임하게 된다. 이들은 오는 3월 22일부터 새 업무를 시작하며 임기는 4년이다.

이번 안동권씨 이외 당선된 6개 조합장은 동안농협조합장 배영규, 서안동농협조합장은 현 조합장인 박영동, 북안동농협조합장 강병도, 안동와룡농협조합장 신정식, 안동농협조합장 전형숙씨가 각각 당선되고 안동산림조합장 이명우씨는 무투표 당선되었다. 이날 각 조합장 당선자 8명은 이영철 대구지법 안동지원장으로부터 당선증을 교부받고 일일이 기념촬영을 하였으며 가족, 친지들은 당선자들에게 많은 꽃다발을 전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서 이영철 지원장은 축사에서 "당선자들은 권리보다 의무의 이행을 꼭 실천할 것"을 당부했으며 권기봉 안동시장은 "오늘의 영광이 있기까지는 인고(忍苦)의 시간이 있었으며 앞으로 시민들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당선자를 대표해서 권태형 안동농협조합장 당선자는 "7천여 명의 조합원과 시민을 위해 선거 때 약속한 공약을 반드시 이행 하겠다"고 다짐했다.



권기봉 조합장(左)과 권태형(右) 조합장이 당선증을 받아 들고 좋아하는 모습.

축사와 당선 소감이 끝나자 이영철 지원장을 비롯하여 관사, 직원들이 당선자들과 함께 화이팅을 외치며 또 권기봉 안동시장과 배준호 농협중앙회 안동시지부장이 당선자들과 함께 각각 기념촬영을 하였다. 이와 더불어 가족, 친지들도 기념촬영을 하느라 많은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권영건 보도부장

안동 이천동석불상(安東泥川洞石佛像 제비원미륵불)

안동 이천동석불상은 고려 때의 불상으로 경상북도 안동시 이천동 산2에 위치한다. 연미사지(燕尾寺址) 소재 보물 제115호(1963. 1. 21 지정)로 화강석으로 만들어져 있으며, 전체 높이가 12.38m, 머리높이 2.43m, 너비 2.7m이다. 별개의 돌로 새겨 불인대 여래입상(如來立像)이며 두부는 뒤가 많이 파손되었으나 앞은 비교적 완전하다. 면상(面)은 당나라의 특징을 나타내고 육계(肉, 상투)가 있는 머리 부분은 다른 돌로 새겼다. 정식 명칭은 안동 이천동마에여래입상(安東泥川磨崖如來立像)이다. 목 부분이 붉은색을 띠고 있는데 임진왜란 때 명나라 장수 이여송(李如松)이 제비원미륵불 앞을 지나는데, 어찌된 일인지 타고 가던 말이 움직이지 않는 것이다. 이상하게 생각한 장수는 미륵불에 올라가 갈로 목을 쳤다. 그때 미륵의 목에서 붉은 피가 흘렀는데, 그 자국이라는 전설이 전해온다.

상의 주변지역을 지칭하는 말이다. 이곳에는 634년 신라 선덕여왕(32대 632-647) 때 명덕스님이 창건했다가 조선시대에 폐사된 연미사(燕尾寺)라는 절이 있었고, 이 절을 원(院)으로도 사용했다고 한다. 원(院)이란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에 지방으로 출장가는 관원들 위해 국가가 설치한 숙박시설을 말하는데 사찰에서도 원을 운영한 바 있다. 당시에는 연비원(燕飛院)으로 부르다가 훗날 제비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옛날에는 경상도에서 충청도, 경기도로 가려면 안동을 거쳐 소백산맥을 넘어야 했는데, 그 길목에 있던 것이 제비원이었다.

제비원은 성주신앙의 발상지이기도 하다. 제비원은 성주풀이라는 민요를 통해 집을 관장하는 가택신(宅神)인 성주(城主)의 본향으로 설정된 곳이다. 성주신이란 가신(家神)이며 집안의 으뜸 되는 신으로 가정의 길흉 회복을 맡아 보는 신이다. 옛 조상들은 집안의 무사태평과 번영을 기원하기 위해 또 집을 새로 지었거나 이사를 했을 때 성주신을 모시는



성주굿을 벌였는데, 성주굿에서 무당이 부르던 무가(巫歌)가 민가에 퍼져 민요화 된 것이 성주풀이었다. 성주풀이 가사 7절 중 2절에는 '성주야 성주로다 성주근본이 어디메뇨/경상도 안동땅에 제비원이 분이 되어라'는 대목이 등장한다. 현재 제비원에는 솔씨공원이라는 소공원이 조성되어 있고 근처에 1934년 옛 절터에 새롭게 세운 사찰 연미사(燕尾寺)가 있다.

청개(靑峯) 권오진(權五辰, 부정공파 35세)

권영호 전 부산총친회장 엘스티 아카데미클럽 회장 취임

권영호 전 부산총친회장 김성수 해운대구청장과 장권세 대한노인회 해운대지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엘스티 아카데미클럽 회장에 취임했다. (앞줄 왼쪽에서 여섯번째)

